韓·中 승가교육 교류 활성화 초석 다지다

중국불교協 고찰단, 6월 3~8일 한국 찾아

中협회·각지 불학원 대표자 참여
중승대·동국대 등 교육기관 방문
한국 승가교육 시설·체계 확인해
"유학승·학술 등 교류 확대할 것"






'중국불교협회 한국승가교육 고찰단'은 6월 3~8일 중앙승가대·동국대·해인사 승가대학·운문사 승가대학 등을 순회 방문했다. 사진 왼쪽부터 중앙승가대 총장 성문 스님이 고찰단장 종성 스님에게 학교발전사를 설명하는 모습, 중앙승가대 본관서 이뤄진 기념촬영, 동국대박물관 서고에서 〈석보상절〉을 보고 있는 고찰단 일행의 모습.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지난 4월 조계종 교육 관계자가 방중한데 이어 이번에는 중국불교협회와 불학원 대표자들이 한국을 찾았다. 한국과 중국불교가 추진하는 승가교육을 통한 인적 교류 활성화에 청신호가 켜졌다.

'중국불교협회 한국승가교육 고찰단(이하 고찰단)'은 6월 3일부터 8일까지 한국을 방문해 조계종립 대학인 중앙승가대·동국대와 전통 강원인 해인사 승가대학·운문사 승가대학 등 한국 승가교육기관을 순회 방문했다.

중국불교협회 상임부회장 종성 스님을 단장으로 한 고찰단에는 대승·티베트·남방 불교 관련 불학원 관계자 27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6월 4일 본격적인 일정에 앞서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을 예방했다.

이날 자리에서 총무원장 설정 스님은 승가교육 교류 활성화에 한·중 양국불교가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설정 스님은 "우리는 국가와 남녀노소 구분 없이 부처님의 일불제자"라며 "소중한 인연을 가슴 속에 담고 한중 교류 강화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이 온 세계에 번져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찰단 단장 종성 스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깨닫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라며 "깨달음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같이 노력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고찰단은 김포 중앙승가대 방문으로 본격적인 일정을 시작했으며, 5일에는 동국대, 6일에는 해인사와 운문사 승가대학을 각각 방문했다. 또한 진각종립 위덕대와 원불교가 건립한 원광대도 참관했다.

이들은 각각의 승가교육기관 현황, 연혁, 학사운영, 교육 커리큘럼 등을 설명받았으며, 궁금한 점들에 대해서는 상세히 질문했다. 중앙승가대에서는 포교사회학과와 같은 현대적 승가교육 커리큘럼에 대한 질문이 나왔으며, 동국대에서는 종합대학으로서 중앙승가대와 차이점 등의 질의가 쏟아졌다.

직접 답변에 나선 중앙승가대 청장 성문 스님은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세상을 모르면 포교를 할 수 없다"면서 "기존 전통 승가교육에 현대 교육이론을 접목하고 불교와 세상을 동시에 알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다. 최종적으로는 세상 사람들이 불교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전법하는 수행자를 양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동국대 총장 보광 스님은 "중앙승가대와 가장 큰 차이점은 학내 구성원이다. 동국대는 13개 단과대학이 있는 종합대학이기 때문에 사부대중이 함께 수학한다"며 "이 같은 이점을 살려 다양한 융복합 과목을 만들어 학인 스님들을 교육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찰단은 도서관 등 각 교육기관의 시설을 둘러봤으며, 한·중 승가교육 교류에 대한 기대감을 표하기도 했다.

고찰단장 종성 스님은 "한국과 중국불교는 많은 교류를 해왔지만 인적교류는 부족했다. 이제 양국 불교 교류는 승가교육을 통한 인적 교류로 확대돼야 한다"면서 "양국 유학생을 교환하고 승가교육 관련 학술세미나 등을 추진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찰단 방문은 지난 4월 23일~27일까지 중국 정부의 공식 초청으로 이뤄진 조계종 교육원장 현응 스님을 비롯한 종단 교육 관계자의 중국 불교 방문에 이은 한·중불교 상호교류의 연장이다.

당시 현응 스님은 위파 중국 국가종교국 부국장과 만난 자리에서 "한·중불교 교류 21년의 역사를 바탕으로 실질적 교류를 위해 양국 불교가 추천하는 10명의 유학승을 교환해 양국 불교교육기관에 수학토록 하자"고 제안했으며, 중국 측 관계자들도 적극 지원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교육부장 진광 스님은 "이번 교류를 통해 한중 불교 승가교육과 관련해 우의증진과 상호교류의 폭이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QS세계대학평가' 동국대 역대 最高 기록

세계 순위 432위로 상승

동국대가 세계 대학 평가에서 432위, 국내 13위에 오르며, 대학 평가에서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

동국대(총장 보광)는 "QS(Quacquarelli Symonds)와 조선일보가 실시한 '2018 QS세계대학평가'에서 세계 순위 432위, 국내 13위에 올랐다"고 6월 7일 밝혔다.

이는 동국대가 2013년부터 QS세계대학평가에 참여한 이래 가장 높은 성적이다. 평가 참여 첫 해인 2013년 601~650위를 기록했던 동국대는 지난해 471위까지 지속적으로 오른 데 이어 올해는 432위로 39계단 큰 폭으로 뛰어오르며 세계대학순위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특히 동국대는 △교수당 학생비율 △외국인 학생 비율 등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며 순위를 끌어올렸다. 이번 평가에서 동국대는 교수당 학생비율과 외국인 학생 비율이 각각 24계단, 51계단 상승했다. 연구경쟁력 높은 교원초빙, 유학생 집중유치 등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신성민 기자

조불련, 민추본에 18주년 축전보내

북한 조선불교도연맹이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의 창립 18주년을 축하했다. 이들은 자비와 화해의 이념서 평화번영을 위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과감한 실천도 당부했다.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원택, 이하 민추본)는 6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 조선불교도연맹 중앙위원회(위원장 강수린, 이하 조불련)가 창립 18주년 축전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또한 조불련이 남북불교교류 협력을 위한 실무협의를 향후 정세추이를 보며 시기와 장소를 정해 추진하자는 의사도 함께 보냈다고 덧붙였다.

조불련은 "판문점 선언은 남북관계의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는 출발선의 장엄한 신호탄이며 역사적 이정표다. 이는 우리 겨레 모두에게 새로운 희망과 활력을 안겨주고 있다"며 "우리 불자들은 자비와 평등, 화해와 화합을 이념으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추본은 이같은 조불련의 축전에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남북불교의 교류협력과 단합을 위해 더욱 정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박진형 기자

미래 100년 다질 정법도량 문 열어

재단법인 선학원, 한국근대불교문화기념관 개관



일제강점기 왜색불교로부터 한국불교 전통을 지키고자 설립된 선학원이 100주년을 앞두고 미래 100년을 준비할 기념관을 개관했다.

재단법인 선학원(이사장 법진)은 6월 2일 서울 안국동 선학원 중앙선원에서 한국근대불교문화기념관 개관식과 만해 용운선사 동상 제막식을 봉행했다.

기념관은 2014년 11월 공사를 시작해 총 대지면적 814㎡(246평)에 지하 4층, 지상 2층의 규모로 지어졌다. 전통한옥 양식의 기념관에는 △정화 불교관 △근대 역사관 △민족 불교관(항일과 독립) △대강당 및 소강당 등이 들어섰다. 지난 2014년 11월 기공식을 시작으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올해 말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은 "민족불교의 전통을 수호하고 정화불교의 기치를 내걸며, 지난 세월동안 선학원 조사 스님들은 불가의 전통을 계승하고 포교와 교육, 복지와 신행, 불교문화의 능동적 창달을 지향했다"라며 "재단소속 600여 분원과 스님들은 수행과 포교 현장에서 불법의 홍보와 설립 조사의 이념을 굳건히 해 나가며 한국불교의 복전이 되고자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정세균 前국회의장은 축사에서 "앞으로 기념관이 사부대중에게는 옛 조사의 수행가풍을 계승 발전하는 도량으로, 시민에게는 역사와 문화의 명소로서 역할과 새로운 도약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세계유산 정림사지 4차산업기술로 '재탄생'

부여군, 6월 4일 역사체험 활성화사업 용역 보고회

40억원 투입… 'ICT 체험' 개발
빅데이터 이용 관람객 니즈 분석



유네스크 세계문화유산인 부여 정림사지가 4차산업기술로 다시 태어난다.

부여군은 6월 4일 군청 브리핑실에서 '정림사지 백제역사체험 활성화사업 전시기획컨설팅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한영배 부여군수 권한대행을 비롯한 부여군 실과단소장, 사업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여했다.

부여군이 추진하는 '정림사지 백제역사체험 활성화사업'은 제3기균형발전사업으로 국·도비 30억 원을 포함 총 40억 원이 투입된다. 사업에 앞서 이뤄지는 전시기획 컨설팅용역은 내년 1월까지 실시된다.

부여군에 따르면 이번 전시기획 컨설팅용역에서는 4차산업혁명의 기술들을 접목해 추진한다는 점에서 기존 용역과 차별화를 지녔다.

다양한 분야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관광시스템과 관광객의 니즈를 철저히 분석하고 박물관 여건분석 및 전시 콘텐츠 기획방향을 제시하게 된다. 호단 시설운영방안, 관광활성화 정책사업 발굴을 비롯해 전시체험 콘텐츠를 기획, 스토리에 맞는 최적의 ICT 체험서비스들이 개발될 예정이다.

한영배 권한대행은 "4차산업혁명과 문화유산과의 만남은 매장문화재로 존재하는 우리군에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한 사업"이라며 "이번 용역을 통해 정림사지 박물관만의 고유한 정체성을 확립하고 첨단 기술을 어떻게 스토리에 녹여낼 것인가에 집중하는 전시프로그램을 구성하려 한다. 첨단 테마형 박물관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여군은 전국 최초로 4차산업혁명의 각종 ICT기술을 문화유산에 접목해 체험관 및 전시관, 박물관의 콘텐츠를 업그레이드 하는 사업에 집중 추진중이다.

올해 하반기 사비도성을 가상복원한 VR, AR, 홀로그램 인공지능 챗봇 안내시스템을 적용한 '사비도성 가상체험관'과 금동대향로 홀로그램, 인터렉션 미디어를 볼 수 있는 '능산리 ICT아트 뮤지엄'을 개관할 계획이다.

신성민 기자

